

琴醉 李 峻 行

採藥忽迷路 千峯秋葉裏  
山僧汲水歸 林末茶煙起

丁酉仲秋錄栗谷先生詩琴醉李峻行

『山中』 栗谷 李珥

| 35 x 135cm |

採藥忽迷路 (채약홀미로)

千峰秋葉裏 (천봉추엽리)

山僧汲水歸 (산승급수귀)

林末茶煙起 (임말다연기)

약을 캐다가 문득 길을 잃었더니  
일천 봉우리의 가을 잎 속이네.  
산 스님이 물 길러 돌아가니  
숲 끝에서 차 달이는 연기 일어나네